

수능 5개월 앞으로... 6월 모의 평가 성적대별 맞춤 학습법

언어 무조건 암기 피하고 기본개념 이해 수리 단골 출제 유형 기출문제 풀어보라

이번 6월 모의평가는 EBS 교재 및 강의와의 실질 연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문제를 그대로 출제된 경우가 적었기 때문이다. 입시전문업체 진학사의 도움으로 수능까지 남은 5개월동안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학습방법을 살펴봤다.

외국어, '빈칸 추론' 문제 집중 연습을

◇언어영역=이번 6월 모의평가의 특징은 문제의 난도 및 유형, 지문의 길이 등에서 지난해 수능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 또한 자료와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최근의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올해 수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수능에서의 EBS 연계는 문학의 경우 동일 작품의 다른 부분 출제 혹은 다른 작품과의 엮기, 비문학의 경우 유사 소재의 지문 활용 정도에 예측된다. 따라서 EBS 교재는 기본 학습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EBS 교재와

의 연계가 지문과 소재의 일부에만 국한될 것이므로 EBS만 맹신하여 암기식으로 준비하기보다는 기본 유형과 개념을 충실히 다지는 선에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기본 개념을 확인해야 한다. 언어영역은 발문과 선택지에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실상 문제 풀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득점을 얻고 싶다면 고난도 '보기'문제를 연습해야 한다. 최근 언어영역에서 고득점의 키워드가 되는 것은 '보기'를 활용한 문제다.

◇수리영역=이번 모의평가에서

는 EBS교재에서 숫자만 바꾸어 출제하는 수준이 포함되는 등 기본 개념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가 많았다. 중요 개념을 다루면서 기출문제를 변형 반복하는 문제는 이제 수리영역의 기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득점을 위한 학습법 중 가장 기본은 기출문제 풀이다. 매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단골처럼 출제되는 유형이 있는데, 특히 몇몇 유형의 문제는 문항 번호까지 정해져 있고 형태와 식, 숫자만 변형돼 출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수리도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한다.

◇외국어영역=이번 모의평가에서 지문 중 상당 부분이 EBS 교재와 연계돼 같은 내용의 지문을 읽어본 수험생이 상당부분 도움을 받았다. 익숙한 지문으로 인해 해석시간 단축 등의 부수적 효과가 작용하게 되면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문항들은 대부분 쉽게 느껴질 것이므로, 올해 수능에서는 EBS 교재에서 출제되지 않은 나머지 30% 문항이 변별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추론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 3년간의 수능 문항별 응답률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어영역에서 가장 응답률이 많은 문항은 빈칸 추론, 제목 추론(주제, 요지 포함), 요약문 완성, 주어진 문장 넣기 등이었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유형들에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될 확률이 높는데, 실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빈칸 추론' 유형의 문제가 7문항이나 출제됐다. 추론 문항들은 단순한 해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집중 연습해 해석이 아닌 독해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과기원은 17일 오전 '2010 GIST-동유럽 우수대학간 국제워크숍' 개막식을 갖고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광주과기원-칼텍 교류 본격화

(美캘리포니아 공대)

콘필드 교수 방문 학생교류·공동연구 논의

광주과학기술원과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이하 Caltech)의 협력 추진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선우중호)에 따르면 칼텍의 줄리아 콘필드 교수(49·화학공학부)가 양교간 협력 논의를 위해 14~16일 GIST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GIST-칼텍 협력위원회' 위원장인 개리 로든

(68·수학과) 명예교수가 GIST를 방문한 지,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콘필드 교수는 선우중호 총장을 비롯해 부총장, GIST 대학장 등과의 회의를 갖고 GIST가 추진해 온 Caltech의 '학부생 하계 연구 지원제도'를 활용한 상호 학생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또 GIST 교수진과의 공동 연구 추진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 빠르면 내년부터 양 대

학의 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GIST광주과기원은 동유럽 최고 대학들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장을 마련한다.

GIST는 17·18일 양일간 학내 오톨관에서 폴란드 바르샤바 공대, 체코 프라하 공대, 루마니아 바베스볼라 대학, 불가리아 소피아 대학 등 4개국 주요 대학과 '2010 GIST-동유럽 우수대학간 국제워크숍'을 갖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신경재생 인공도관 세계 첫 제작

조선대 김근형 교수 논문 獨저널 표지 논문 선정

조선대 김근형 교수(공과대학 기계공학과)가 세계 최초로 신경손상 환자의 신경재생용 인공도관 제작에 성공했다



17일 조선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전기유체공정을 이용한 배열된 나노 파이버로 구성된 신경손상 환자의 신경재생용 인공도관 제작에 성공, 논문이 독일 과학 저널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다.

일반적으로 손상된 신경 재생에 사용되는 자가신경이식은 이식된 신경의 감각이상, 길이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에는 암 절제술 등에 의해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키기 위해 조직공학체제를 응용한 신경도관 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다.

김 교수가 이끄는 바이오·나노유

체 실험실에서 제작된 인공 신경재생용 도관은 생체흡수성 고분자, 누에 추출 소재와 많은 신경 재생 물질을 가진 특수 바이오폴리머를 전기유체공정을 통해 제작했다. 재생용 도관은 기존 나노 파이버로 구성된 신경도관에 비해 신경조직이 빠르게 성장했고, 강도 또한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는 독일 윌리샤에서 출간하는 재료공학저널인 'Macromolecular Materials and Engineering' 6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치과대학 국제 학술대회

오늘·내일, 마·일·중 등 치의학 교수 참석

최근 치의학계는 새로운 생체 재료의 개발과 유전자를 이용한 조직재생 그리고 미생물과 면역·분자생물학을 이용한 병리규명 및 치료물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연구 경향을 반영해 조선대 치과대학(학장 김수관)은 최신 치의학 경향을 만날 수 있는 2010년 국제학술대회를 18~19일 이틀 동안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치의학계를 대표하는 교수들과 전문연구원들이 참석해 최근 치의학 부

야의 국내·외 연구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진다. 첫날 대회에서는 김수관 치과대학장 개회사에 이어 특별강사로 박재욱 가톨릭대 교수가 '인간의 상악동과 잇몸 뼈를 구분 짓는 막에서 파생된 줄기세포', 김명래 이화여대 교수가 '치과 실습 후에 따른 이식감각의 진단과 관리' 등을 각각 강연한다.

둘째 날에는 전호중 총장 측사에 이어 특별강의로 왕후이밍(중국 저장대학교)의 '심각한 폐포결핍증에서 치과 임플란트의 디자인과 치료전략', 가이 후인바(미국 텍사스대학교)가 강연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실버케어학과 '독거노인 결연'

여대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선정

광주여대(총장 오장원) 실버케어학과 봉사프로그램이 최근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선정한 '2010년도 여대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실버케어학과는 '실크로드-고령화시대 맞춤형 독거노인 결연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독

거노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봉사 프로젝트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학과 동아리인 '실크로드' 소속 학생들이 독거노인을 위해 발관리·미용치료·원예치료·웃음치료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발관리는 관리

사 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전문성까지 높은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오장원 광주여대 총장은 "앞으로 도래할 고령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노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노인들이 안고 있는 사회·문화적 어려움에 대해 바람직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할 토대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학교와 학과 발전 및 복지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목포대 지역연고산업 육성한다 지경부 신규지원 대상 선정

목포대(총장 고석규)가 지식경제부의 '2010년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신규지원(사업기간 3년)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1차 연도인 올해 국비 5억원과 지방비 2억5000만원 등 모두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화순·무안·전남 한방산업진흥원·화순 농특산물유통(주)·전남 생약농업협동조합 등의 참여 기관과 함께 '친환경 약용자원 유통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전남의 한약초 최대 생산 및 유통지로 자리를 잡은 화순에 친환경

약용자원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광주·전남, 제주의 약용자원 유통 중심지로 만들고 약용자원의 특화를 통해 한약초의 메카로 가를 계획이다.

이번 RIS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개강 ▶ 7월 1일
수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7월 1일

한빛고시학원

압도적 1위 시설합격을 강사진

남보다 빠른 합격의 기회는 바로 여름방학이다!

공무원 합격전략설명회

유망직업 취업전략설명회

일시: 6월 25일(금) 14:30 ~ 18:00

타원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5년연속 호남지역 최다합격자 및 수석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수강생 80%이상 석권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2-234-0234)